

가을 노동 현장에도 안전을 잇다 ‘가을은 청명, 안전은 맑음’

- 노사발전재단, 가을철 이동·옥외 노무제공자 대상 현장 캠페인 전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올 한 해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 - 사계(四季)」를 추진하며 계절 변화에 따른 산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현장 중심의 밀착 안전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오고 있다.

지난 봄철 이동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에 이어, 이번 가을철에는 ‘가을은 청명, 안전은 맑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을철은 건조한 기후로 인한 화재와 태풍·강풍에 따른 옥외 작업 재해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에 재단은 이번 캠페인은 계절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을철 재해(계절질환·화재·태풍) 예방 캠페인 ▲이륜차 안전점검 ▲노동자 건강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첫 행사로 9월 16일에는 천안에서 야간 운행과 노면 변화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를 위해 이륜차 안전 점검 행사를 실시한다. 제동 및 조명장치 결함, 타이어 마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 매뉴얼 및 계절용 안전물품을 배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11월까지 서울, 경기, 청주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가을철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기상 악화로 인해 이동노동자와 옥외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재해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상반기에 이어 가을철 노동 현장에도 밀착형 안전 지원을 지속하여 취약노동자의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일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	책임자	팀 장	마계희 (02-6021-1065)
		담당자	책임컨설턴트	이주연 (02-6021-1231)

